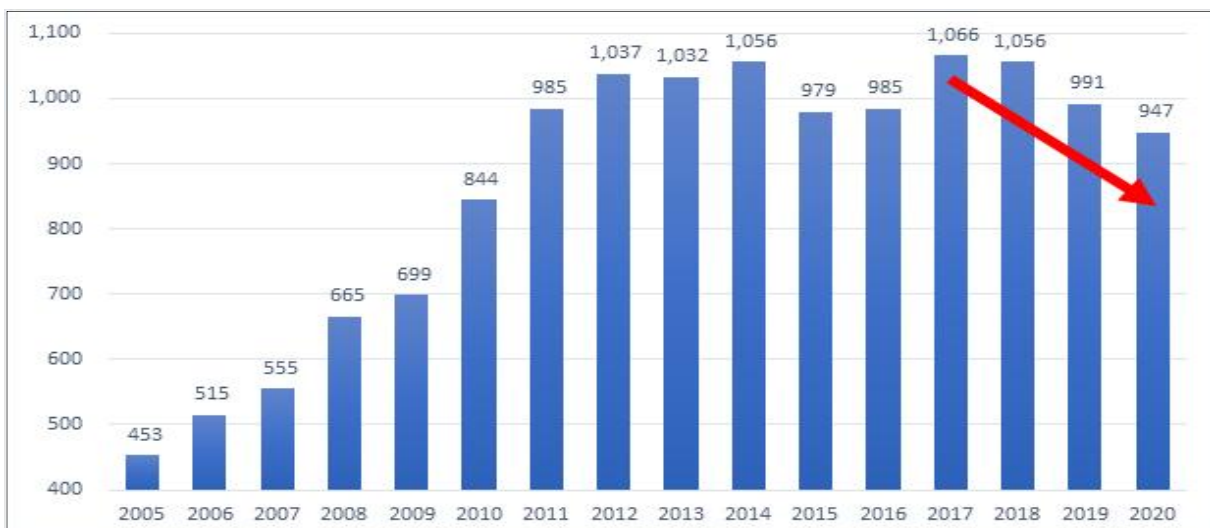


- 2020년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 4.4% 감소, 전년(-6.1%)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
 - 전국산업단지(산단) 통계에 따르면, 지난해 1,238개 산단 생산액은 947조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후폭풍이 몰아쳤던 2010년 844조원 이후 최저치 기록
 - ※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58%(2018년 기준)를 차지, 작년 기준 전국 산단 1283개 가운데 중앙정부 부가 조성을 주도한 국가산단은 47개이고,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 주도로 만들어진 지방산단으로 구성
-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... 文정부 들어 내리 4년 감소
 - 문 정부 출범한 2017년(1,066조원)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4년 새 119조원 감소
 - 하지만 동(同) 기간 중 전국 산단 수는 49개나 증가
 - 또한 전국 산단 생산액이 2년 이상 연속 감소한 것도 처음
- 무모한 산업단지 조성, 기업들의 '디지털 전환'에 대한 적응 부족뿐 아니라, 현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, 주 52시간제 도입, 과도한 환경규제 등이 산단 쇠락의 주 원인으로 지적됨
 - 지자체는 산단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 관리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고
 - 정부는 노동·환경·공정거래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함

전국산업단지 생산액, 문재인 정부 들어 119조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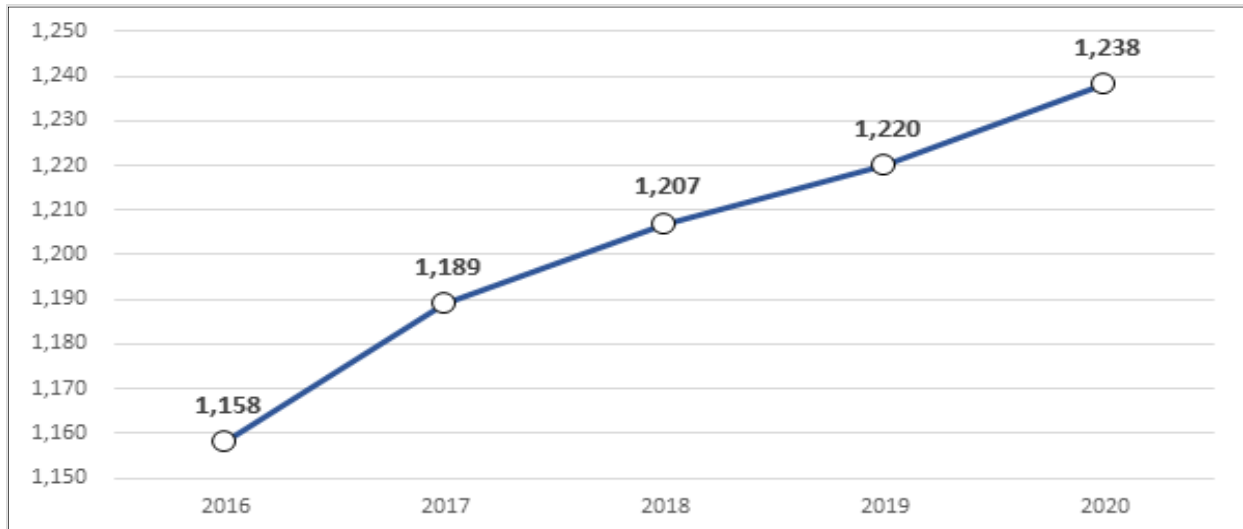
단위: 조 원



자료: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보고서 <https://www.kicox.or.kr/index.do>

전국산업단지는 2017년 1,189개에서 2020년 1,238개로 49개 증가

단위: 개



자료: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보고서 <https://www.kicox.or.kr/index.do>